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요르단에서 사계절 중 가장 날이 좋은 봄입니다. 화창하고 따뜻한 날처럼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 가정 소식

2학기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말이면 학기가 거의 끝나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매주 주말에 기도모임이나 비전 학교 등에 참여하면서 집에서 모임에 대한 것이나 성경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저희 두 부부가 늘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두 부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아이들을 대하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 사역 소식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자주 듭니다. 태권도 동작 등을 하려 애쓰는 아이들 중 몇몇은 충분한 식사를 못한 듯 힘이 많이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목도 가늘고 발차기 동작에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눈만은 태권도를 배움에 즐거움으로 반짝거립니다.

저희가 사역 하는 곳은 가난한 지역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곳입니다. 종종 방문하는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한 모습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그마한 재정을 나누고 센터장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실업률도 높고 가난하고 아픈 이도 많은 이 지역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1. 지역 센터 재 오픈을 위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재정 등이 채워 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이 부르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3. 아이들의 마지막 학기 학비가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